

기획특집

한우산업 결산과 전망

FOCUS

1. 농림수산물부가 농림축산부로 가나
2. 2013년도 농림부 예산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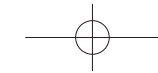
Information

1. 노란우체통 경품 추첨식
2. 한우자조금 신규 집행부 구성체제 돌입

넌 푸른 대지를 빠르게 달리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부러워 마라.
넌 이 세상 어디 내 놓아도 부끄럼지 않을 한우라네
사실을 잊지 말아라. 비록 말처럼 잘 달리지
못해도 난 한우니가 자랑스럽다.

한우가 뜨겁다!





Contents January 2013

- 02~04 기획특집
한우산업 결산과 전망
- 05 신년사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06~07 Focus 1
농림수산식품부 개편
- 08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연구용역 발표
- 09~11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12 Focus 2
2013년 농림부 예산 편성
- 13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14 한우전망
- 15 Information
애독자코너

번식농가 적자 암소 도축두수 절반넘어

농가소득 안정화 시급,
적정사육과 적정소비 이뤄져야

사육 동향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번식농가 줄도산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우산업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우사육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6월, 311만두로 정점을 찍었다가 농가의 암소도태와 한우자조금을 통한 다양한 할인판매를 통해 4/4분기에 다소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18만 한우농가는 지난해 말 기준 14만여 농가로 급격히 줄었다. 번식농가를 담당하는 영세농가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심각해져 20두 미만 사육농가는 10만여 농가로 전년 대비 2만여 농가가 사라졌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송아지 가격의 심각한 하락세로 인해 번식농가의 경영수지와 번식의향이 악화되면서 송아지 생산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한우송아지 산지가격은 2012년말 기준은 67만4천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6.9% 하락했으며, 암송아지의 경우 30~40만원대 거래가 비밀비재하다고 농가들은 말한다. ([표 1] 참조)

영세농가가 대부분인 번식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한우협회는 지난 9일 한우산업정책협의회를 개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현실성 있는 개편을 촉구했다.

정부측은 생산안정제는 한우번식기반 유지가 취지인데 사육두수 과잉 시 한우산업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협회는 이사회 논의와 지역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도축 동향

키울수록 적자, 암소도축 절반 차지

사육두수만큼이나 도축두수도 상당히 늘었지만 암소가 절반이상이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달려라 한우야!!

새해가 밝았음에도 한우농가의 마음속에는 그늘이 짙다. 어려운 현실의 무게에 버거움을 느끼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야만 하는 농가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올해는 한우가 다시 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달려라 한우야!



【표 1】 전국 한우 사육두수 및 농가 추이

(단위 : 마리,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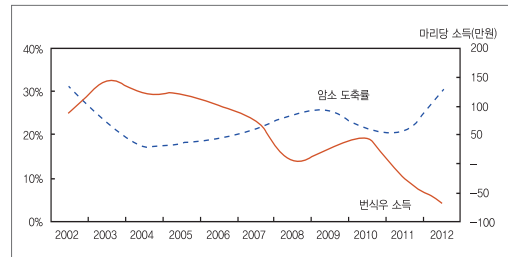
전국통계		'12년 4/4분기	'11년 4/4분기	'10년 4/4분기	'09년 4/4분기	'08년 4/4분기
사육 두수	합계	2,932,815	2,819,674	2,761,576	2,477,043	2,269,333
	암컷	1,848,786	1,828,123	1,768,722	1,601,637	1,493,999
	수컷	1,084,029	991,551	992,854	875,406	775,404
한우 농가수	합계	141,495	157,559	166,226	169,011	175,611
	20미만	103,749	120,326	130,560	138,462	147,841
	20~50	23,357	24,283	23,317	20,109	18,706
	50~100	9,230	8,624	8,311	6,932	6,338
	100이상	5,159	4,326	4,038	3,508	2,726

를 보면 한우 송아지를 통한 농가 순수익은 두당 백만원이상 적자를 기록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입었고, 그에 따라 적자운영을 유지할 수 없는 농가는 암소를 출하하기 시작했다. (【표 2】 참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84만2,771두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고, 이 중 암소 도축두수는 43만6,977두로 전체 도축량의 5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29만3,640두)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이 같은 결과는 한우산업과 번식 농가의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반면 거세우는 34만9,283두로 41%를 차지해 오히려 전년(37만6,458두)대비 7% 감소했다. 등급별로는 암소도축으로 인해 1등급 이하 출현율이 증가하고, 1등급 이상 출현율은 감소했다. 쇠고기 등급별 시장차별화 현상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 비육농가의 소득도 등급별 편차가 크다. 지난해 기준 1+등급과 1++등급간의 두당 소득격차는 66만원이며, 3등급과 1++등급 간은 328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3】 참조)

【표 2】 암소도축률과 번식우 마리당 소득추이



【표 3】 2012년 한우 도매가격 및 비육우 소득 추정

(단위 : 천 원)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600kg 기준)	2012년 추정치		소득 (A-B)	순수익 (A-C)
			경영비(B)	생산비(C)		
1++	17,276	6,209	4,870	6,030	1,339	179
1+	15,451	5,553			683	-477
1	13,851	4,978			108	-1,052
2	10,772	3,872			-998	-2,158
3	8,148	2,929			-1,941	-3,101

변동향

정액 판매량 급감, 송아지 생산 감소

암소도축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수정액 판매량도 급감했다. 농협집계 결과 191만4천여 스트로우로 전년대비 12% 이상 감소했다. 이는 이전에 비해 가임암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따라서 올해 송아지 생산두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농경연 관측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1세 미만 송아지 생산 잠재력은 전년 동기기간보다 3.6% 높게 나타나 3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94~298만두로 예측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송아지 입식 의향 조사결과도 송아지 입식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겠다는 농가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7.1%보다 낮은 4.4%로 기록돼 입식의향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 동향

쇠고기 수입량 감소, 소비촉진 영향

도축두수가 증가하면 쇠고기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지금 한우가격은 그나마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합세 유지의 첫 번째 이유로는 도축두수가 증가했지만 도체중이 적은 암소 도축이 크게 늘어 총 쇠고기생산량은 '11년 대비 8.2% 증가한 23만4천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입량은 12.4% 감소한 25만4천톤으로 지난해 쇠고기 총 공급량은 2011년보다 3.5% 감소한 48만8천톤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국내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수입량 감소로 인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3.9% 감소한 9.8kg으로 예상되며, '12년(1~11월) 가정내 4주 평균 쇠고기 소비량은 1.4kg으로 '11년(1.46kg)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평년(1.38kg)보다는 증가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한우자조금 및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한 할인판매가 소비활성화로 연계되어 충분한 효과를 얻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의 할인판매지원 뿐만 아니라 시식회, 급식지원 등 소비처확보에 집중한 결과 쇠고기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부터 군납 쇠고기가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연간 1,400톤)되는 등 소비판로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잦은 할인판매와 저등급의 암소판매로 인해 명품의 한우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실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표 4】 쇠고기 수급 동향

단위 : 천 톤(정육 기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급	전년 이월	28	35	40	-	-	-	-
	생산	158	171	174	198	186	216	234
	수입	179	203	224	198	245	289	254
	계	366	409	438	396	431	505	488
수요	국산 소비량	158	171	174	198	186	216	234
	수입 소비량	172	198	191	198	245	289	254
	차년 이월	35	40	73	-	-	-	-
	계	366	409	438	396	431	505	488
총 소비량		331	369	365	396	431	505	488
자급률(%)		47.8	46.4	47.6	50.0	43.2	42.8	48.0
1인당 소비량(kg)		6.8	7.6	7.5	8.1	8.8	10.2	9.8

2013년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육두수를 지난해보다 6.1% 감소한 287만두로 예상하며 송아지 생산 감소와 도축두수 증가, 번식의향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도매가격은 국내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5년까지 하락하겠으나 그 이후로 차츰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한·미 FTA의 영향으로 쇠고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차츰 국내 쇠고기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라 예상되므로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한우자조금의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쇠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 천 톤(정육 기준)

구분	2012 (추정치)	전망			
		2013	2014	2017	2022
생 산	234	253	246	243	249
수 입	254	261	277	292	313
한우우사육두수(만 두)	306	287	277	267	261
1인당소비량(kg)	9.8	10.3	10.6	10.8	11.3
한우 자육가격(원/kg)	13,121	12,594	12,476	13,279	13,586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임진년이 가고 계사년이 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우농가와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 한우가격 안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한우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가분들의 어려움과 상실감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한 암소값 회복을 위한 소값대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소비자들이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직접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동시키는 가격연동제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체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한우의 소비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근과 끈기, 우직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한우처럼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한우농가 모두가 한우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 곁에 한우자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우사랑기업 캠페인’ 일환 설명절 전임직원 한우선물세트 구입



한우소비를 촉진하고 한우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과 국내 대표 영화예매 전문기업인 맥스무비가 뜻을 모았다.

한우자조금은 국내 대표 영화기업인 맥스무비와 ‘한우사랑 기업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4일 맥스무비 본사에서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번 조인식은 국내 영화 산업을 선도하는 맥스무비사를 매개로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림으로써 한우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맥스무비사는 올 설 전 임직원에게 한우선물세트를 나눠주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맥스무비사에서 진행

하는 이벤트에 한우선물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알면 알수록 한우’라는 한우 사랑 홍보 문구가 삽입된 맥스무비 티켓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우자조금과 공동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에 맞춰 맥스무비사 사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우 선물세트를 시증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예약 판매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물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가나

식품제외 논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 정책 시행해야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22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축산물위생안전기능을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농림축산부로의 개편안 발표에서 식품분야가 제외되어 허울 뿐인 개편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축산단체 및 농업단체는 인수위원회 앞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개편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24일 진행했다.

홀대받는 축산업, 효율적 관리 이뤄져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수산부분이 해양수산부로 부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5년만에 부활했다. 이에 축산단체와 농가들은 지난해 12월 7일 개최한 축산인한마음전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자리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후보자 시절)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중대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1국 4과에 불과한 축산분야 중앙행정조직을 갖췄었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물식품부 예산 중 축산부문은 8.4%에 불과해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FTA 등 수입개방을 앞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로의 개정은 축산인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시 축산분야는 중앙행정조직이 확대되어 축산실이 설치되며, 축산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 기대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 관리의 중요성

농가들은 농림축산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를 원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 정책을 실현하여 실효성있는 축산정책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식품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외된 것이다. '98년 이전에는 식약청이 모든 식품업무를 관할하며 김치파동, 만두파동을 비롯한 먹거리 파동이 발생할 때마다 미숙한 대처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생산농민과 산업전반에 큰 피해를 일으켰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반에 걸친 전문성이 부족했고, 식품 안전성의 평가와 관리를 일괄관리해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선진국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식품안전 국제기구인 '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고에 따라 안전성평가와 관리를 별도기관으로 분리했고, 우리나라도 '98년부터 일반식품(식약청 관할)과 축산식품(농식품부 관할)으로 분리해 관리했다. 분리 후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 HACCP 도입 등의 농정정책이 시행됐고,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민·관 전문인력이 육성됐다.

【표 1】 선진국의 식품관리 집행기관 분리상황

국가명	평가	관리
유럽연합	유럽식품안전청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총리 소속)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캐나다	보건부	농업식품부
미국	일반식품 : 식약청(FDA), 축산식품 : 농업부(USDA)	

변경된 업무방향과 축산단체의 우려

이번 개편안은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서 이원화했던 식품분야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원화할 경우 기존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수산분야와 식품 분야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므로 농림축산부의 대폭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부는 생산단계부터 도축까지만 책임지게 될 경우, 이 후 과정인 유통관리 및 검역 등은 식약처에서 관할하게 된다.

총괄과 집행은 분리돼야 마땅하다

농림수산물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간 위해부정불량식품유해기준을 통일시키고, 소통 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 안전정보망 구축 - 【대선공약 발췌】

현재 개편안대로 진행된다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업무는 98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대선 공약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 정책이 타 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농가소득 증대와는 무관한 정책을 시행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이에 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면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하되 기획 조정 등 총괄업무와 집행업무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총리실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조정 총괄업무를 집행하며 농식품부 등 각 부처는 분야별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표 2, 3】 참조)

또한 축산물의 경우 구제역, AI 등 전염성 질병발생 시 현장 전문 인력이 요구되며, 고단백식품으로 부패가 쉽기 때문에 생산, 유통, 소비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를 구축해 농축산물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축산단체마다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난 18일 단체장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의방문하여

“식품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과제를 간과한 것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추진해 농식품의 생산과 관리, 육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신성범(새누리, 산청·함양·거창)의원과 김영록(민주통합, 해남·완도·진도)의원 등도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는 식품산업 및 축산업의 발전, 정부조직의 효율화, 더 나아가 국민건강의 안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탁상공론이 만들어낸 시대에 역행하는 농림축산부로의 개편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농림축산식품부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표 2】 식품관리 업무 개편 요구안

개편전	개편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기능 미비 및 유명무실(위원회) 2 부처별 유해물질 기준 상이 3 국민소통 총괄전담기능 취약 4 부처별 복잡한 소관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력한 총괄관리 체계(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식품안전 통합계획 수립 * 각 부처의 집행기능 관리 감독 2 유해물질 평가기준설정 및 총괄(식약처) 3 국민소통 One-Stop 전담(식약처) 4 불량식품 근절 총괄
<div>총리실 (식품안전위)</div> <div>농식품부 (농수축산물)</div> <div>식약처 (일반식품)</div> <div>교과부 (학교급식)</div> <div>환경부 (먹는물)</div> <div>국방부 (군납)</div> <div>지방자치단체</div>	<div>식약처(총괄)</div> <div>농식품부, 교과부, 환경부, 국방부 등 (농축산물, 학교급식, 먹는물, 군납 등)</div> <div>지방자치단체</div>

【표 3】 불량식품 근절 위한 3단계 단속 체계

구분	담당	세부활동방안
1단계	지자체(시·도)	지역내 식품업체 일상 지도·감독
2단계	각부처	농축수산물 등 분야별 특별단속 전담기구 설치
3단계	식약처	부처 합동 지도단속 계획 수립 및 총괄

한미 FTA 이행 시 한우생산액 최대 5조9천억원 감소 한우농가의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

한미 FTA 협정 시 한우농가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정부는 작년 1월 FTA협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으나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의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최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 협정 이행 시 향후 14년간 한우 생산액의 감소 피해는 최소 3조7천억원에서 최대 5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6년 이전 종료, 지금 기준 미흡해



연구결과, 정부가 마련한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대책은 한우산업의 생산액 감소 피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으로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시 비육농가만 해당되어 번식농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비육우 출하 시 두당 10만원에서 최대 33만 1천원에 불과하다. 이 또한 2016년 이전에 종료되는데 이 기간동안 한우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최소 878억원에서 최대 7,658억원으로 추정된다.

폐업지원금은 출하마릿수와 순수익액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우의 경우 마리당 소득과 순수익인 한우가격과 사료가격 변동에 의해 매우 불안정하다. 이는 국제 사료가격 인상여부에 따라 생산비 변동이 심하며, 번식우의 경우 '08년 이후 계속 적자로써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이 한우농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특별법 개정필요

우선 국내 한우사육의 실정에 맞도록 비육농가와 번식농가를 구분한 후 피해보전직불제가 시행해야 하며, FTA 협정 이행기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폐업지원직불금의 경우 매년도 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고정 순수익률(또는 소득률)을 적용하여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한우 번식기반이 위축되어 산업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탄력적인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1조3천여억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한우산업의 피해규모는 3조7천억원에서 최대 5조9천억원까지 예측된다. 이에

FTA기금에서 충당하기보다는 농특회계나 축발기금 등의 국고보조금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제 농가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FTA 피해보상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한·미 FTA 협정 발효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지원 대책이 되어야 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안·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11.12.31 이전 축산업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한우사업단 소속 농가로 제한한다.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
- 축사시설(축사내부의 시설 - 급수, 전기, 환기시설 등), 축산시설(방역, 퇴비장, 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 환경규제, 인근 민원 등 축사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기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 시 동일 면적까지 지원 허용

사육규모(면적환산)을 기준으로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을 지원하며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이 가능하다.(단 준전업농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전업농기준		50두 이상			
준전업농규모		전업농의 1/3수준 이상(16두 이상)			
기업농규모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150두 이상)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 · 산정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융자(준전업~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한(육)우	260천원/㎡	300	110~1,050㎡	400	1,050㎡~

※ 축사시설은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축산시설은 농가 지원액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지원제외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필수의무준수사항 :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 한우사업단에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자가배합사료(TMR)제조장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육)우 농가로 100두 이상 사육농가 또는 3농가 이상이 자율 조직체(법인 구성)를 구성한 경우로 200두 이상 사육하는 경우에 속한다. 지원내용은 사료배합기 및 레일 등 자동화장비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이다. 지원한도액은 개소당 50백만원이다.

노란우체통 경품추첨식

지난 14일, 1등의 주인공은 경남에서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와 축산기업중앙회가 주관한 '2012 한우희망 노란우체통' 행사에 경남 거창의 장영옥(59) 씨가 1등인 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경품에 당첨됐다.

지난 14일 한우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10,471개 정육업소에서 응모한 노란우체통 행사 추첨식을 진행해 총 4,151명의 당첨자를 추첨해 1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1등에는 경상남도 거창읍에 거주하는 장영옥 씨가 당첨의 영예를 안았다.

장영옥 씨는 "한우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행사를 계

기로 좋아지길 바라며 하루빨리 한우값이 안정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남배 한우협회장은 "협회는 주로 농협과 전국의 대형마트 중심의 행사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4만5천여개의 일선 정육업소와 함께 이번 행사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축산기업중앙회 유재춘 회장은 "지속적인 행사를 통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안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2 한우희망 노란우체통 행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2등에는 200만원 상당의 황금소 10명, 3등에는 100만원 상당의 LED TV 40명, 4등에는 15만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 100명, 5등에는 5만원 상당의 한우웰빙부위세트 3,000명, 온라인 당첨자 1,000명에게는 4만원 상당의 한우육포세트가 증정됐다.

한우요리 배워 설날 센스만점 머느리 되세요

한우자조금, 스타 요리연구가 초청 CJ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개최



한우를 이용한 양념갈비 요리를 무료로 배운다.

한우자조금은 CJ제일제당과 함께 한우를 주제로 설 명절 손님 초대요리를 배울 수 있는 '한우 쿠킹클래스'를 지난 25일 서울 중구 백설 요리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한우 쿠킹클래스에서는 한우 떡갈비 스테이크와 한우 등심 루꼴라 샐러드 요리법을 스타요리강사인 요리연구가 정미경 씨가 직접 가르쳤다. '설 명절 손님 초대 한우요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클래스는 한우11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교육대상을 선발했다. 한우

자조금 강성기 위원장은 "알고 보면 쉬운 간편요리부터 특별한 날 선보일 수 있는 요리까지 우리가 알지 못 하는 한우 요리법이 많다"며 "다양한 한우 요리법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레 알리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마다 CJ제일제당과 함께 한우 쿠킹클래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명절 앞두고 대대적 소비촉진 통한 소값안정 도모

선물세트, 정육세트 등 최대 50%이상 할인판매

농협 선물세트 최대 37%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업체가 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값 안정과 소비촉진에 나선다.

한우자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전국한우협회, 농협과 함께 설 선물로 가장 인기가 있는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시중가격 보다 최대 37%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명절 한우고기 선물세트 할인판매’ 행사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추진되는 행사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실시된다. 이번 할인판매 행사는 400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500대 기업, 경제 5단체 등에 판매안내서 배포를 통한 사전 주문판매방식과 농협 e-쇼핑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된다.

한우고기 선물세트는 정육(국거리, 불고기 등), 갈비, 보신, 등심 등 10종류로 구성해 시중판매가격 대비 21~37% 할인된 가격(5만원~32만원)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금액에는 택배비가 포함돼 있다. 차례용으로 사용되는 국거리용, 불고기용, 산적용 부위로 구성된 ‘한우암소 기획세트’ 제품은 할인이 32%이고,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갈비 세트와 구이용 세트는 각각 22%, 29% 할인판매한다. 겨울철 부모님·수험생 건강에 인기 있는 사골, 꼬리세트는 각각 33, 37% 수준으로 할인이 가장 크다.

이번 할인판매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매가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구매는 농협중앙회 e-쇼핑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배송일자를 지정하면 된다. 오프라인 구매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농협안심축산전문점판매점에서 오는 2월6일까지 가능하다.

다양한 유통 업체 통한 할인판매

농협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해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한우전문음식점 등을 통해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오는 2월 9일까지 실시한다.

행사품목은 한우선물세트를 비롯해 국거리 등 한우제수용 정육과 한우부산물 등이다.

할인 폭은 한우선물세트와 제수용 정육은 정상가의 30% 이상 할인판매하고 부산물의 경우 50% 이상 할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나 한우작목반 등에게는 한우자조금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행사매출액의 5%를 소셜커머스와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전문음식점에는 5~8%가 지원한다.

또 생산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우작목반이나 한우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세트당 9천원을 지원한다. 또 품목별로 할인 행사비를 지원하고 증정품과 홍보물, 홍보비, 포장비, 택배비 등도 업체별 제안에 따라 지원한다.

2013년도 농림부 예산 15조4천여억원 확정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신규지원

올해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총 예산은 15조4천 11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012년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축산분야 예산도 일부 확대 조정됐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포함한 농수산물식품부 총 지출규모는 18조3천862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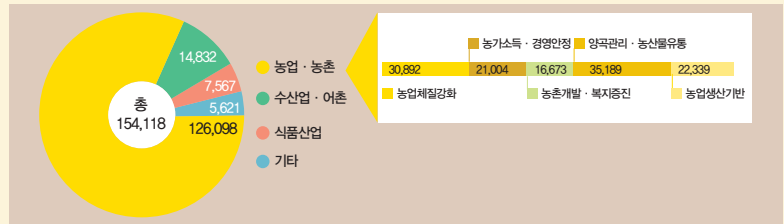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증액한 것이 눈에 띈다.

그 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원으로 묶여있던 쌀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원으로 상향하고, 밭농업직불제도 확대됐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을 추가 반영했고,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다목적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했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귀농귀촌활성화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농업을 농민으로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자본금(총 5조원) 가운데 1조원의 현물출가가 이뤄질 때까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국제 곡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 확대가 무엇보다 눈에 띈다. 농식품부는 이 분야에 올해 총 2조241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사료값부담완화를 위한 사업을 600억원에서 2,650억으로 확대한다. 총 3천400농가에 3%이자에 5천만원 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지난해 1천240억원에서 300억을 증액해 1천54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및 비축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에 355억, 수입콩 비축 2637억을 배정했다.

2013년 농림수산물식품부 예산 개요



단위 : 억 원

구분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총 사업비	154,083	154,118			
농업·농촌	127,210	126,098			
			주요사업	'13예산	전년대비
농업 체질강화	27,704	30,892	Golden Seed프로젝트	160	▲137
			농지매입비축사업	1,675	▲175
			시설원예품질개선	996	▲274
			축산분뇨처리시설	853	▲853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1,700	▲1,700
농가소득· 경영안정	19,780	21,004	재해대책비	2,200	▲644
			쌀소득보전고정직불	6,984	▲803
			밭농업직불제	726	▲129
농촌개발· 복지증진	16,097	16,673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지원	2,820	▲227
			농어촌보육여건개선	327	▲52
			복합산업화	2,280	▲281
			농어업인재해공제	382	▲11
양곡관리· 농산물유통	32,547	35,189	정부양곡매입비	8,484	▼329
			수입양곡대	3,270	▲194
			산지유통종합자금	7,434	▲1,578
			비축지원	6,215	▲865
농업 생산기반	31,082	22,339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020	▲328
			배수개선	2,700	▲200
			농어업기반정비	2,907	▼99
			새만금지구(내부개발)	2,335	▲185
수산업·어촌	13,633	14,832			
			주요사업	'13예산	전년대비
			노량진수산물시장건립	231	▲179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10	▲52
			원양어선현대화사업	405	▲241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695	▲108
			친환경양식어업육성	189	▲38
식품산업	6,881	7,567			
			주요사업	'13예산	전년대비
			천일염산업육성	139	▲39
			글로벌K-food프로젝트	154	▲154
			우수농식품구매지원	3,871	▲219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220	▲220
			축산물HACCP인증지원	83	▲11
기타	6,358	5,621			

제작 : 농림수산물식품부

한우자조금 신규 집행부 구성체제 돌입

2월 19일, 신임 관리위원장, 의장, 관리위원 선거 치룬다

한우자조금이 신규 집행부 구성체제로 돌입했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대의원회 의장, 관리위원, 감사의 임기개시가 오는 2월 16일에 종료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유성에서 회의를 갖고 대의원회 개최 일정과 선관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는 2월 19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신임 대의원들이 의장과 감사, 관리위원, 관리위원장 등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조성환, 위원에는 이종율, 진향구, 강도용, 이강우, 전영한, 윤호식 등 7명이다.

관리위원은 당연직 7명 이외에 17명을 선출하기로 하여 전체 24명이 된다. 대의원 중 관리위원장이 되는 등의 경우 1명이 늘어 25명이 될 수 있다.

1. 세부 선출 일정

구 분	대의원의장	위원장	관리위원	감 사
선 거 공 고	2013. 1. 24(목)			
선 출 인 원	1명	1명	17명	2명
후 보 자 등 록	1.25~1.29	1.25~1.29	1.25~2.8	선거당일추천
대 의 원 추 천 서	10명	10명	5명	선거당일추천
기 호 결 정	1. 31(목)	1. 31(목)	접수순서	선거당일결정
공 보 발 송	2. 8(금)	2. 8(금)	2. 8(금)	-
선 거 일	2013. 2. 19(화). 13:00			
선 거 장 소	농협 안성 교육원 대강당			

2. 도별 관리위원 수 배분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도 별 배 분	1	1	1	2	2	3	4	3	17

한우자조금 신임 사무국장 채용

임기 3년 연령제한 없어

한우자조금은 지난 17일부터 채용공고를 통해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채용에 나섰다.

한우자조금은 임기 3년에 사무국장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해 규정개정에 따라 연령제한은 없다. 신임 사무국장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오는 2016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

서류접수는 31일 마감했으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년 12월 한육우 사육두수 306만 두로 사상 최고치 경신, 3월 한육우 사육두수 감소 전망

전분기보다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고 도축두수가 증가하여 2012년 12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9월 314만 두보다 감소한 305만 9천 두로 조사되었다(통계청). 한우 사육농가수는 14만 1천 호로 전년 15만 8천 호보다 1만 7천 호(10.8%) 감소하였다. 2012년 정액 판매량이 2011년대비 12.3% 감소하여 2013년 송아지 생산두수는 2012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암소 도축 증가로 2012년 등급판정두수 17.6% 증가, 2월 도축 전년보다 증가, 수입 감소 예상

암소 도축 증가와 할인행사에 따른 한우고기 소비 증가로 2012년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전년 동기 간보다 17.6% 증가한 84만 3천 두였다. 이중 암소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48.8% 증가한 43만 7천 두, 거세우는 전년보다 6.7% 감소한 34만 9천 두였다. 수입육 소비 감소로 2012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2.4% 감소한 25만 4천 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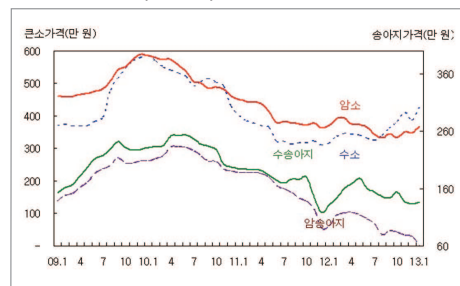
암소 감축사업 연장에 따라 2월 등급판정두수는 전년(5만 4천 두)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육 재고가 여전히 많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2만 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이후 비수기에 접어드는 2월 도매시장 가격 1월대비 약세 전환 전망

송아지 가격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번식의향이 크게 위축되어 정액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며,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가격차가 크게(76만 원) 벌어지고 있다. 1월 14일 현재 우시장 암송아지 전국 평균 가격(6~7개월령 기준)은 89만 원, 수송아지 가격은 165만 원에서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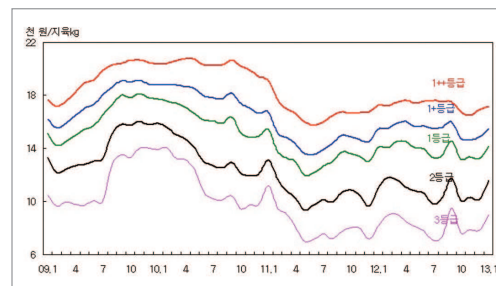
설 명절을 앞두고 거세우가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1월(1~14일)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4,145원(지육kg)은 전년 14,072원보다 높으나, 평년 15,214원보다는 7.0% 낮은 수준이다. 설 이후 비수기에 접어드는 2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월보다 하락한 13,000~14,0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평년 14,412원, 전년 14,022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우 산지가격(우시장) 동향



자료 : 농협중앙회

등급별 도매시장 가격 동향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소식 이모저모

FMD 백신 미접종 농가 적발... 방역 비상

농식품부 중앙기동점검반 점검결과,
32개 농가 주요사항 위반

FMD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로 인해 축산현장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1년 4월 21일 이후 FMD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백신 미접종 농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긴장감 저하로 FMD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서 FMD가 발생해 청정화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지원 제외 ▲축산정책자금 불이익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앞으로 미접종 농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도축금지', '명단공개' 등 보다 엄격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지역별 FMD 백신 구입율 등을 고려하여 취약 농가 294호를 점검한 결과, 32개 농가를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FMD 백신 미실시 13개소 ▲백신접종 실시대장 및 확인서 미작성 등 8개소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11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은 우리나라가 2014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FMD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앞두고, FMD 재발 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FMD 청정화가 장기간 어려워진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농식품부에서는 FMD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축의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홍보물 20만부를 추가 제작하여 배포키로 했다.

올해부터 개정 육량등급기준 적용

농림수산식품부는 불가식지방의 생산량을 줄이고 지방 과다형 쇠고기 생산을 억제하고자 '11년 10월 18일 고시한 개정 육량등급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현행		개정	
육량등급	육량지수	육량등급	육량지수
A	67.50 이상 62.70 이상	A	67.20 이상 63.30 이상
B	67.50 미만 62.70 미만	B	67.20 미만 63.30 미만
C	62.70 미만	C	63.30 미만

한우 자조금
등록번호 114-02-01108

비매품 제9권 통권 제87호 발행일 2013년 1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마화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편집·인쇄 탐미디어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애독자 코너

한우자조금은 한미 FTA를 앞두고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급 기준이 미흡하며 피해액에 비해 보상도 매우 적다고 발표해 현실성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 한·미 FTA 협정 시 최소 3조7천억원에서 최대 5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급기한도 201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지급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00농가의 지급도 기준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00농가를 위해 송이자생산안정제의 현실성있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한우의 생산기반을 지키는 00농가는 누구일까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이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우편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당첨자

12월로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정진명(경북 봉화군), 송석용(강원 원주시), 박정석(경기 여주군), 양윤재(충남 천안시), 안정섭(경북 경산시), 고명숙(경기 김포시)

한우 음식점 소개

별고을한우

전화 : 054)932-5555

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847-1

성주의 젊은 한우인 6명이 의기 투합해 설립한 '성주한우 영농조합'에



서 직영하고 있는 '별고을한우'는 그들이 애써 기른 '참품한우'만을 취급하고 있는데 대충해서 표현할 때 10만원이면 서너명에서 고급 '참품한우'를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성주C앞 성주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있어 찾기도 쉬울뿐더러 주차 공간 또한 여유로워 좋다. 최근에 개장해 인테리어도 멋진데 두 개의 건물로 나누어 정육코너와 식당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한우**입니다

우리조상의 영혼과 슬기가 스며있는 문화재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천년을 이어온 우리 한우도
15만 농가의 땀과 정성이 스며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한우입니다.

한우 품종별 분포도

향수한우 황초와우 충주한우 자연의 약속 충남 _ 토바우 하늘소 흥성한우 경북 _
영천포도한우 경남 _ 한우지에 애우 천하1품 보물섬남해한우 하동솔잎한우 함
_ 전남 _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영암매력한우 청보리한우
_ 백년 한우풍경 행주한우 평택미한우 푸른연인한우 강원 _ 늘푸름
_ 랑우랑 향수한우 황초와우 충주한우 자연의 약속 충남 _ 토바우 하늘소 흥성한우 경
_ 주한우 영천포도한우 경남 _ 한우지에 애우 천하1품 보물섬남해한우 하동솔잎한
_ 보리한우 전남 _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영암매력한우 청보
_ 한 _ 한우백년 한우풍경 행주한우 평택미한우 푸른연인한우 강원 _ 늘푸름
_ 토조랑우랑 향수한우 황초와우 충주한우 자연의 약속 충남 _ 토바우 하늘소
_ 각돌한우 영주한우 영천포도한우 경남 _ 한우지에 애우 천하1품 보물섬남해한우 하동솔잎
_ 주한우 참예우 총채보리한우 전남 _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영암매력한우 청보리한우
_ 구 한우람 한우백년 한우풍경 행주한우 평택미한우 _ 인한우 강원 _ 늘푸름
_ 한우 황토조랑우랑 향수한우 황초와우 충주한우 자연의 약속 충남 _ 토바우 하늘소 흥성한우 경북 _ 의성 마늘소 참품한우
_ 문경약돌한우 영주한우 영천포도한우 경남 _ 한우지에 애우 천하1품 보물섬남해한우 하동솔잎한우 함천황토한우 한결한우 의령
_ 향수한우 참예우 총채보리한우 전남 _ 지리산순한한우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영암매력한우 청보리한우 대슬맑은한우 표고골한우 배



맛있습니다!

한우는 고기의 맛과 영양을 좌우하는 **올레인산**이 다른 수입육보다 훨씬 많아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 좋습니다!

한우는 수입육에는 없는 **유전인자가 5가지** 있습니다. 한우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올레인산, 각종 비타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전통 보양 음식입니다.



신선합니다!

우리 땅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한우. **산지에서 갓 올라온 한우**는 그 어떤 수입육보다 신선합니다.

약속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건 약속, 한우는 **최고기아력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